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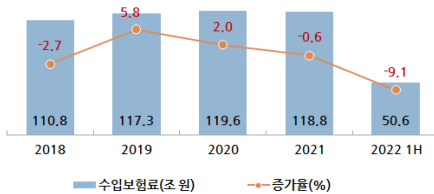
II

보험산업 주요 동향

1. 2022년 상반기 성장성과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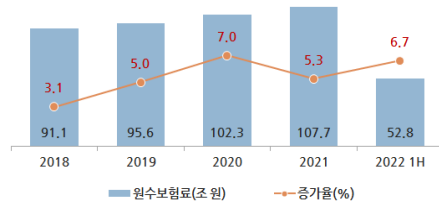
- 2022년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금리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는 저축 및 투자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 성장성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을 미치고 있음
 -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실물경기 둔화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보험과 기업성보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은 2022년 상반기 6.7%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22년 상반기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함

〈그림 II-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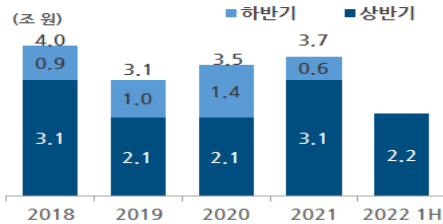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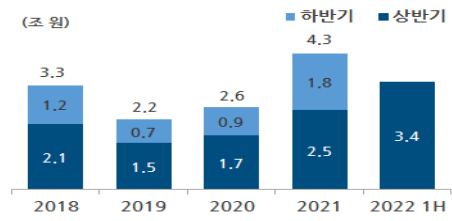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3〉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I-4〉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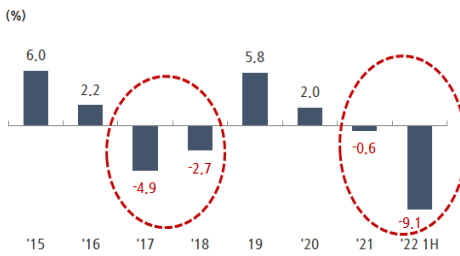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2. 생명보험 장기 성장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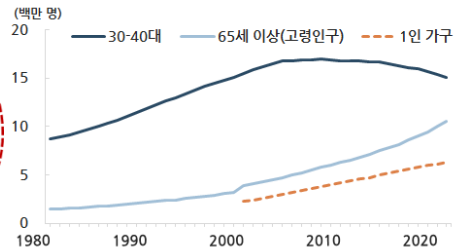
- 2015년 이후 8년간 생명보험은 네 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구조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생명보험산업의 저성장 장기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개인보험의 주요 신규 고객층인 30~40대 인구는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보험가입여력이 낮은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또한 1인 가구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유족이나 자녀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성보험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의 저성장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II-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6〉 30~40대 인구, 65세 이상 인구, 1인 가구 추이



주: 1인 가구 통계는 2000년 수치부터 공표됨
자료: 통계청

3.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가. 개요

- 2022년 상반기 저축보험과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보장성보험의 성장세는 둔화됨

- 저축보험은 은행 정기에금 금리의 큰 폭 상승으로 상대적 금리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수입보험료가 대폭 감소하고,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함
- 연금보험도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보장성보험의 경우 유일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는 예년에 비해 둔화됨

〈표 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단위: %)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보장성	3.2	2.5	-7.3	1.2	1.9	2.7
저축	-0.1	1.1	-29.3	-32.7	-31.6	-28.2
연금	12.7	-1.8	-4.7	-4.2	-9.8	-1.9
변액	15.2	6.3	-0.3	-4.1	-28.1	-24.6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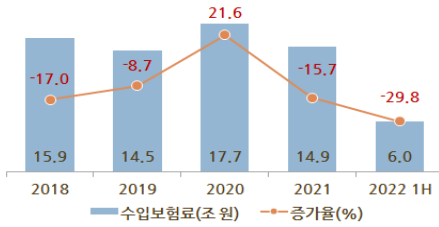
나. 저축보험²⁾

- 저축보험은 2020년 21.6%의 고성장 이후 2021년 -15.7%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2년 상반기에도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저축보험은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95%를 상회할 정도로 방카 채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정기에금 상품과 대체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2020~2021년 기간에는 공시기준이율이 정기에금 금리를 크게 상회하면서 저축보험이 대규모 판매되었음
 - 최근에는 공시기준이율과 저축성예금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은 금리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그동안 보험회사는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전략을 유지해 왔으나, 자산운용 효율성을 위한 자산 규모 확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축보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2) 여기서 저축보험은 생사혼합보험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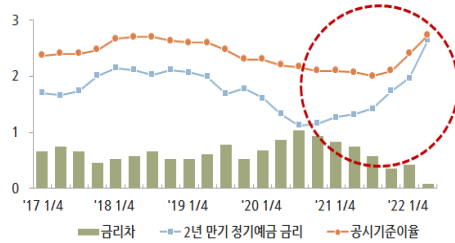
- 저축보험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이익률 향상이 필요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저축보험 만기 적립금 재유치를 위한 연금상품 연계 전략 등이 필요함

〈그림 II-7〉 저축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8〉 정기예금 금리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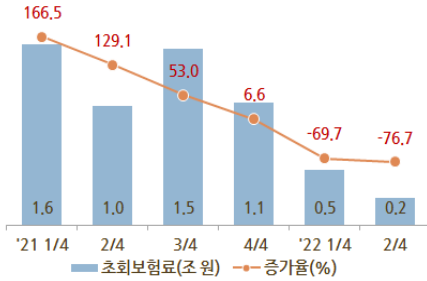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다. 변액보험

○ 2022년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가지수 하락으로 급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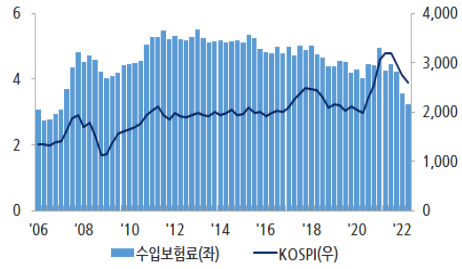
- 코로나19 시기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인투자 선호도가 확대되어 금융시장이 회복될 경우 자금 이동이 민감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변액보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특히 주식처럼 손쉽게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ETF (Exchange Traded Fund)시장이 부상함
 - 또한 디지털 환경은 개인이 투자 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림 II-9〉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0〉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보장성보험³⁾

○ 2022년 상반기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종신보험 신상품 전략 위축과 경
기둔화로 성장성이 둔화됨

- 생명보험 보장성보험은 2015년 이후 종신보험 신상품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
장해옴
 - 연금전환 종신보험,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등 사망보장 기능과 노후소득 및
저축 기능을 혼합한 상품전략이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함
- 그러나 상품 복잡성 증가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조치 또한 증
가함
- 2021년 하반기 이후 종신보험과 질병, 건강보험 초회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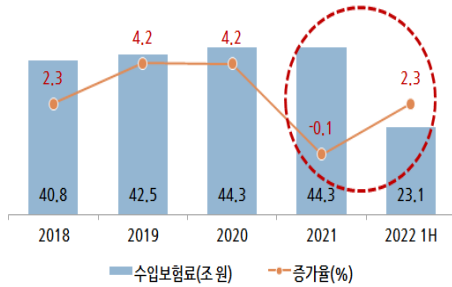
○ 2015년을 전후하여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압박이 커지고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장성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변경함

- 2015년에는 연금 선지급형(연금미리받는) 종신보험이, 2019~2020년에는 (무)저해
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주력상품으로 판매되었음

○ 그러나 상품 복잡성 증가로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조치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신상품 전
략이 위축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이어갈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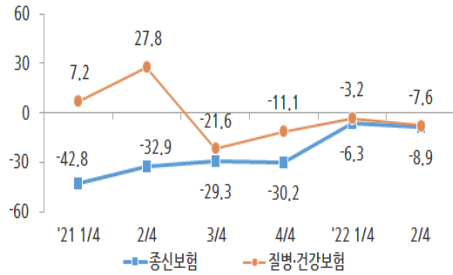
3) 해당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등을 포함함

〈그림 II-11〉 보장성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2〉 종신 및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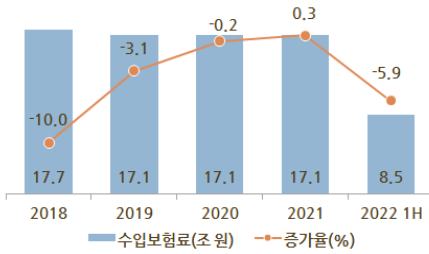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2015년 이후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수수료 규제, IFRS17, K-ICS 제도 도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함
 -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의 세제혜택 축소, 개인형 IRP상품의 세제적격 연금시장 잠식 등도 연금보험 부진의 요인임
 - 2022년 상반기에도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공시이율이 상승하면서 연금보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공적연금 개혁 문제의 대두와 이로 인한 사적연금 활성화 논의 본격화로, 생명보험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금보험(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연금)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II-13〉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2〉 연금보험 위축요인

연금시장 분류	위축 요인
세제적격 연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혜택 약화(소득공제 → 세액공제) • 개인형 IRP의 세제적격 연금시장 잠식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금리하에서 수수료 제약 (7년 내 원금 100% 보장) • IFRS17, K-ICS제도 도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자료: 김세중 외(2022. 8. 17),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CEO Report』

- 정책적으로는 수수료 및 세제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음

〈그림 II-14〉 보험산업 연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

보험산업 연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	
정책적 대응방안	(세제혜택 확대)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
	(연금보험 분류방식 변경)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
전략적 대응방안	(저축형 및 투자형 상품의 균형) 저축형과 투자형 상품 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연금가입 목적별 연금상품 공급)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 확대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 극대화
(수익률 개선 및 리스크 관리)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보험의 수익성 개선	

자료: 김세중 외(2022. 8. 17),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CEO Report』

-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연금보험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있음
- 전략적 대응방안으로는 연금 가입 목적별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자연헷지 관계를 이용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요구되며, 보험회사는 연금상품의 수익률 개선 및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4.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가. 개요

-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개인보험에 속하는 장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세는 소폭 약화됨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기업성보험 중심이나 경기둔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고성장세임
 -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표 II-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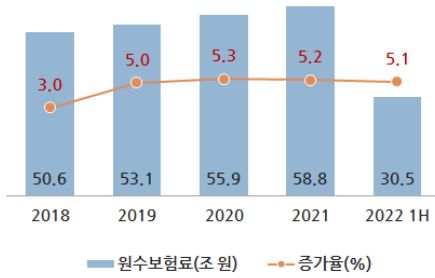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장기 보장	6.0	6.7	6.8	6.6	6.5	6.2
장기 저축	-8.9	-17.7	-17.3	-22.6	-17.4	-24.4
자동차	6.3	3.8	1.4	3.7	3.0	3.0
일반손해	8.5	10.3	7.8	8.3	6.7	10.2

주: 장기 저축에는 개인연금 포함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장기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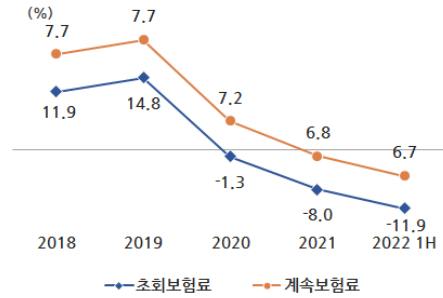
- 장기 보장성보험은 2020년 이후 신규가입이 정체되면서 계속보험료 및 갱신보험료 위주로 성장함
 -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가입 둔화로 인해 장기 보장성보험 성장세는 점차 하락하고 있음

〈그림 II-15〉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6〉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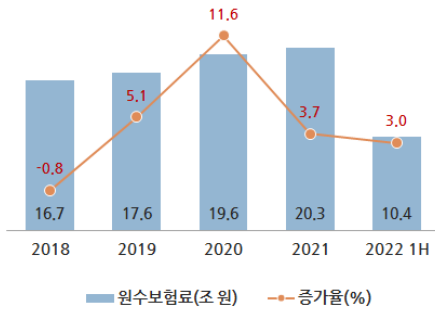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자동차보험

○ 2020~2021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고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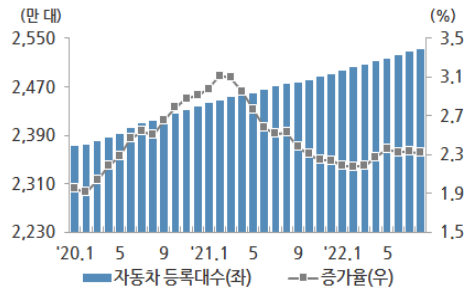
- 보험료 인하 조치, 온라인 채널 비중 증가, 마일리지 특약 의무 가입 등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II-1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8〉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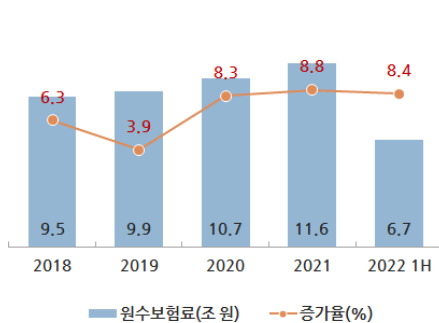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라. 일반손해보험

○ 2021년 상반기 화재,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은 2020년 이후 8%대의 고 성장을 지속함

- 과거 기업성보험 위주의 일반손해보험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최근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성장함
- 종목별로 보면 화재보험이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해상보험과 특종보험은 선박수주와 수출입 물동량 증가, 책임보험 시장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II-19〉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4〉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구분	'21 2/4	3/4	4/4	'22 1/4	2/4
화재	18.3	19.8	13.1	1.8	0.1
해상	-4.4	16.8	25.4	7.6	28.4
보증	6.0	-2.4	-5.4	3.0	1.0
특종	13.0	8.6	8.7	7.0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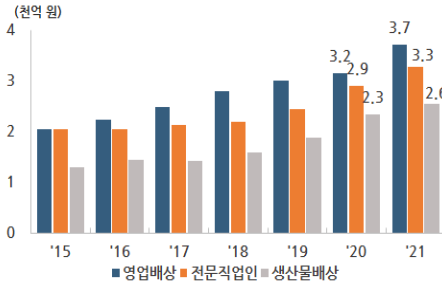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한편, 일반손해보험 중 성장세가 높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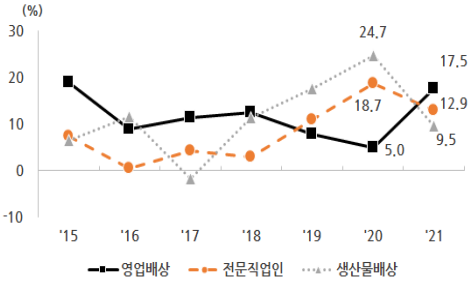
○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인 영업 배상, 전문직업인 배상, 생산물 배상 모두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배상, 전문직업인 배상, 생산물 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세 종목이 배상책임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5% 수준임
- 2021년 영업 배상, 전문직업인,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모두 전년 대비 9% 넘는 고성장을 유지함
-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2014년에 비해 약 2배 규모로 성장함

〈그림 II-20〉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별 보험료 〈그림 II-21〉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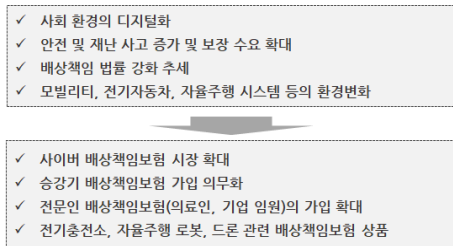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배상책임보험은 디지털화와 4차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보장영역 등장, 배상 책임 법률 강화 추세, 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 의료인 및 기업임원 등 전문직업인 배상 가입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경제성장과 함께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배상책임 영역도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22〉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 요인



〈그림 II-23〉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추이

